



미 증시, FOMC 불확실성 소화하며 급등

미국 증시 리뷰

27 일(수) 미국 증시는 MS(+6.7%), 알파벳(+7.6%) 등 양호한 가이드언스를 제시한 빅테크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예상에 부합했던 7 월 FOMC 75bp 인상 소식 및 이후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감도 확대된 영향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한 채로 마감(다우 +1.37%, S&P500 +2.62%, 나스닥 +4.06%, 러셀 2000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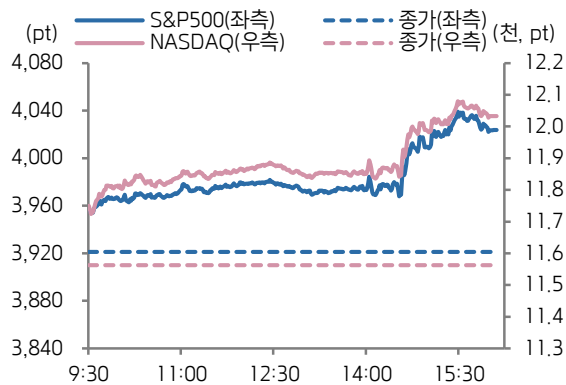
7 월 FOMC 에서 75bp 인상 단행으로 기준금리는 2.25~2.5%에 도달.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필수적이고 지금보다 더 큰 폭의 인상도 가능하다' 라고 언급. 한편, '통화정책 기조가 추가로 긴축됨에 따라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동안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 하다는 완화된 발언. 시장은 기존 예상치에 부합한 금리 인상폭과 파월 의장의 가이드언스의 강도가 덜 매파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험선호 심리 회복, 상승폭 확대.

미 상원에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을 통과시킴. 법안 내용에는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외에 연구 및 인력 양성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응용화에 2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또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이는 향후 10년동안 240억 달러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 6 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대비 1.9%(예상치 -0.4%, 전월치 0.8%)를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미국 6 월 미결주택 매매는 전월대비 -8.6%(예상치 -1.0%, 전월치 0.4%) 기록하며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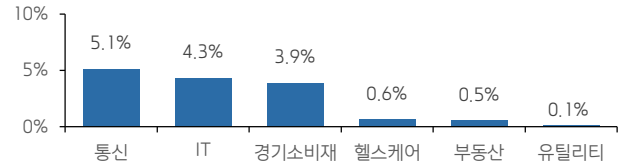
업종별로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통신(+5.1%), IT(+4.3%), 경기소비재(+3.9%) 업종의 상승세가 가장 강했고, 유틸리티(+0.1%), 부동산(+0.5%), 헬스케어(+0.6%)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알파벳(+7.66%), 마이크로소프트(+6.69%)는 전일 부진한 실적발표에도 주가 선반영 인식 속 상승. 메타(+6.55%)는 기업들의 광고 집행 축소가 진행되며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로 하락, 향후 SNS 플랫폼 업체의 성장 우려를 높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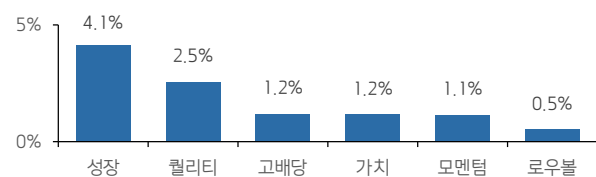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4,023.61 | +2.62% | USD/KRW | 1,313.32 | +0.4% |
| NASDAQ | 12,032.42 | +4.06% | 달러 지수 | 106.46 | -0.68% |
| 다우 | 32,197.59 | +1.37% | EUR/USD | 1.02 | +0.01% |
| VIX | 23.24 | -5.87% | USD/CNH | 6.74 | +0% |
| 러셀 2000 | 1,848.34 | +2.39% | USD/JPY | 136.58 | +0.01% |
| 필라. 반도체 | 2,911.00 | +4.75%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3,847.01 | +1.71% | 국고채 3년 | 3.080 | -4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115 | -6.5bp |
| Eurostoxx50 | 3,607.78 | +0.91% | 미국 국채 2년 | 2.998 | -5.5bp |
| MSCI 전세계 지수 | 622.69 | +1.71% | 미국 국채 10년 | 2.785 | -2.2bp |
| MSCI DM 지수 | 2,675.09 | +1.93%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989.89 | +0% | WTI | 97.26 | +2.4% |
| MSCI 한국 ETF | 59.84 | +2.06% | 금 | 1737.5 | +0.1%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2.0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8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7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6.1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7월 FOMC 안도감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위험선호심리 확산 가능성 2. 원/달러 환율 하락세 지속으로 인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 유지 여부 3. 메타의 시간외 주가 급락이 국내 광고 수익 비중 높은 성장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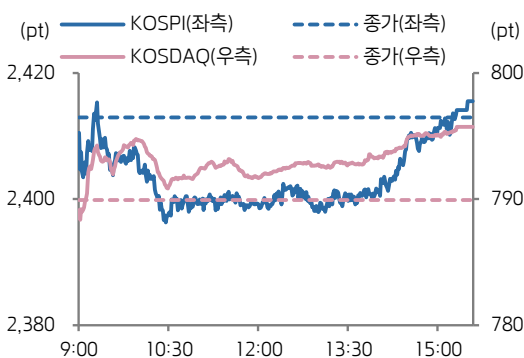
7월 FOMC 결과 발표 이후 위험선호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장은 안도랠리를 전개한 상황.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정책 강도를 제시했으며 이를 재료 소멸 인식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 물론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의 속도 하락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져가기 보다는, 연준의 금리인상 경로에는 데이터 및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종합해보면, 연준은 성장 둔화를 유발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확인 시켜줬기 때문. 또 9월 이후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혹은 더 큰 폭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한 결정은 향후 수집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점을 참고해볼 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의 경우, 유가 포함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진정, 실물 수요 둔화 등을 반영해 7월 미국 CPI 상 피크아웃을 확인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 따라서 9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지만, 7월 수치에서 피크아웃 확인 이후 인플레이션의 유의미한 레벨다운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각각 25bp 인상으로 반영되고 있는 11, 12월 회의 때의 금리인상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

이처럼 월 중 대형 이벤트였던 7월 FOMC 종료로 인해 증시 부담 요인을 한층 덜어낸 것은 사실. 다만, 단기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기자회견 직후 채권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10년 기대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는 것. 이는 지난 5월, 6월 FOMC 직후 나타났던 현상과 유사하며,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당시 증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5월 FOMC 직후 +3.2%/다음날 -5.0%, 6월 FOMC 직후 +2.5%/다음날 -4.1%를 기록하면서 FOMC 이후 시장 반응이 극단으로 오갔던 경험이 있음. 다만, 당시와는 달리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피크아웃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연준의 시장 신뢰도 일정부분 회복했음을 고려했을 때, 차익실현 성격 이상의 극단적인 하락 반응이 출현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에 이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지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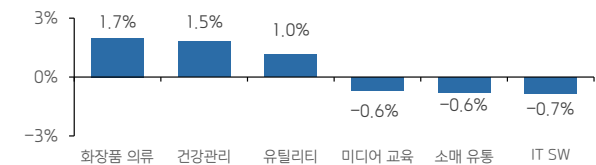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7월 FOMC 이후 미국 증시의 안도랠리 효과, 달러화 강세 진정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역외 -8원) 등이 외국인 수급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 미국 장 마감 후 발표한 메타(+6.5%)의 실적이며 여타 플랫폼 업체와 경쟁 심화 및 광고 축소 등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간외 주가가 4%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긴 함. 그럼에도 FOMC 안도심리 속 국내 전일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선방 소식 등이 이를 상쇄시켜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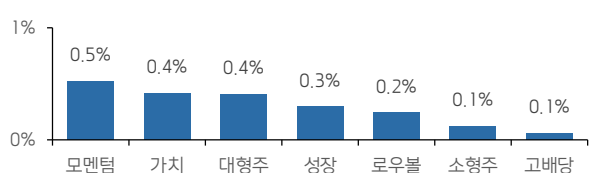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